

BTS 뷔·블핑 제니, 다시 열애설



▲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왼쪽),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 사진=twitter(Taehyungimpact)/Instagram(jennierubyjane)

을 잡고 파리 강변을 거닐며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들은 모자를 눌러 쓰기는 했지만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모습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성과 여성이 뷔와 제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뷔는 프랑스 현지에서 진행되는 패션 브랜드 화보 촬영과 행사 참석을 위해, 제니는 '제76회 칸 국제 영화제' 기간인 22일 프랑스 남부 칸에서 열리는 미국 HBO 드라마 '디 아이돌(The Idol)' 시상회와 레드카펫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5월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뷔와 제니로 추정되는 남녀가 제주도에서 드라이브를 했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해 8월에도 뷔와 제니로 추정되는 남녀의 사생활 사진과 대기실에서 함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돼 열애설에 또 휩싸였다. 소속사 측은 당시에도, 이번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방탄소년단' (BTS) 멤버 뷔와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프랑스 파리에서 손을 잡고 다정히 걷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퍼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녀가 늦은 시각 손

메간 폭스, "내 몸 사랑한 적 없어"

과격적인 노출 의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할리우드 배우 메간 폭스(37)가 신체이형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에 따르면 폭스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본 적이 없다. 신체 이형장애를 갖고 있다." 고 고백했다.

신체이형장애는 흔히 외모 압박 증으로 알려진 질환으로, 실제로는 외모나 신체에 결점이 없는데도 심각한 결점이 있는 것처럼 여겨 신체 특정 부위까지 혐오하는 질환이다. 외모에 대한 불만족때문에 성형수술을 받거나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 신체이형장애를 갖고 있다고 고백한 배우 메간 폭스, 사진=연합뉴스

폭스는 "내 몸을 사랑한 적이 결코 없었다." 며 "어린 시절부터 몸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외모나 몸매에 대해 항상 비판적이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여정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메간 폭스는 2009년 처음으로 신체이형장애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도 "스스로에 대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털어놓았다.

메간 폭스는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2010년 13살 연상의 배우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지만 이혼했다.

2020년부터 4살 연하의 가수 머신 건 켈리와 열애 중이다.

드라마 '택배기사' 넷플릭스 시청시간 1위



▲ 드라마 '택배기사'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택배기사'가 참신한 소재와 볼거리를 앞세워 공개 첫 주 비영어권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SF(Science Fiction)가 겪어온 부진을 씻어낼지 주목된다.

1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TOP) 10'에 따르면 5월 8~14일 '택배기사'의 시청 시간은 3천122만 시간으로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가장 많다. 넷플릭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청 시간을 집계한다. 이를 고려하면 '택배기사'는 지난 12일 처음 공개되고도 주간 최다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

'택배기사'는 해성 총들로 지구가 멸망한지 40년이 지난 2071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부족해진 생필품과 산소를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폭력 집단 '헌터'와 사투를 벌이는 택배기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초반 흥행 면에서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택배기사'가 "한국은 SF의 불모지"라는 팬들의 아쉬움을 떨쳐낼 만한 평가를 받을지도 관심사다. 한국 SF 콘텐츠 가운데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콘텐츠가 줄줄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최근까지도 유독 SF 장르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업소명(한국):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속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

